

움직이는 선원 동안거 결제

1일 입제식, 7명 동참 매일 15Km 행선 '야단법석'도

법당·선방에서의 정적인 기도·참선으로 대표된 안거 수행이 산으로 들로 나왔다.

도법 스님을 비롯한 지리산 움직이는선원 대종들은 12월 1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2010년 2월 28일 해제일까지 90일간의 동안거에 들어갔다.

지리산성지화불교연대(준)는 12월 1일 한국 불교 최초의 '움직이는 선원'의 동안거 입제식을 남원 실상사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도법·일과·호선·원목·효광·효진·해진 스님 등 7명의 결제 대종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호진 스님은 움직이는 선원 교불문에서 "명안종사의 점검과 지도가 사라진 수행처에서는 누가 더 많이 좌선하는가를 수행의 척도로 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삶의 현장을 수행처로 삼는 보살 민행이 사라지고, 빨리 깨달아야겠다는 속효성, 치구심을 앞세워 경쟁하듯 좌선을 하다 보니 깨달음의 길은 더더욱 멀어지고, 수선남자의 삶은 향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교단은 사회적으로 무력해지고 말았다"며 "기존의 조용하고 안정된 수행 도량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탐·진·



'움직이는 선원' 결제 대종 스님들이 12월 1일 실상사에서 입제식을 봉행하는 모습.

치 삼목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중생들의 삶의 현장을 수행도량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상사 주지 재연 스님은 환승인사에서 "안거기간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뜻 깊은 안거가 되기를 바란다. 남아있는 대종들도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고 화답했다.

움직이는선원의 결제 대종은 안거기간동안 지리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800리길을 걸으며 진리 탐구의 수행을 한다.

대종들은 지리산을 수행도량으로 삼아 성스러운 곳임을 선언하고 수행자의 삶을 산중의 모든 사람과 자

연에게 열어 보일 예정이다. 또, 실상사 대원사 화엄사 쌍계사 벽송사 등 지리산권 사찰들이 댄 건립, 케이블카 설치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리산 성지화를 위해 출범시킬 '지리산 성지화 불교연대'의 산중불교운동을 추진한다.

입제식 후, 실상사를 출발한 결제 대종은 첫날 지리산 황매암에서 숙박하고 시간당 2~3km의 속도로 하루 15km를 걷기 시작했다.

한편, 동안거 기간 중 '부처님의 생애'를 주제로 지리산 승가야단법석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찬불가 배우며 신심 키운다

송태군 거사·대성월 보살 5일 부터 운영

완주 위봉사 일요법회(회장 이두연) 회원들과 전북 포교사단 음성포교팀이 찬불가 배우기로 신심을 키우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찬불가 배우기 교실은 전주 서신동에서 폐다고지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태군(만송) 거사의 지도와 대성월 보살의 피아노 연주로 지난 5월부터 운영됐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찬불가만 30여 곡.

20여 참가자들은 매주 토요일 폐다고지 학원에 모여 2시간씩 찬불가를 부르며 찬불가 속에 담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익혀왔다.

찬불가 교실을 이끌고 있는 만송 거사는 찬불가 연구소도 함께 운영하며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경력을 바탕으로 열성을 다해 찬불가 부르고 보람을 나누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다.



완주 위봉사 일요법회 회원들과 전북포교사단 음성포교팀원들.

만송 거사는 "타종교 성가대를 지도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양하고 있다"면서 "찬불가에 깃든 깊은 뜻을 바로 알기 위해 화엄불교대학을 졸업하는 등 정진을 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송 거사는 "불자들의 신심을 드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축된 찬불가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항상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쉽고 가슴깊이 느끼기 위한 방편으로 찬불가 부르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063)252-5056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행은 환희심 느끼는 일"

2일, 지구촌공생회 제3회 후원자 대회 개최

국제 개발구호 NGO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후원자대회와 홀몸어르신 돕기 모금행사가 12월 2일 전주 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홀몸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모금행사를 겸해 열린 공생회 후원자대회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전북지부장 원광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익산 사암연합회장 우성 스님과 지구촌공생회 300여 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공연과 이남제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의 사업보고에 이어 서원노인복지회관과 전북불교회관의 홀몸어르신 156가구에 1000여 만 원 상당의 전기매트와 겨울 솜이불



12월 2일 전주관광호텔에서 열린 지구촌공생회 제3회 후원자 대회 모습.

이 전달됐다. 월주 스님은 "그동안 전국에서 많은 후원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해외우물파기 사업이 1000개에 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러한 이웃을 돕는 자비심을 낸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즐겁고 환희심을 느끼는 일이다. 기쁜 일에 동참해주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활동에 모범을 보인 정진열 자원봉사단장 등 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훈훈한 나눔의 행사 이어져

광주생명나눔 김치·연탄 나누기 행사

1만배 정진으로 만들어진 치료비 지원금과 독거노인을 위한 김치·연탄이 전달돼 겨울나기의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생명나눔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11월 23일 화순전대병원에서 난치성 백혈병 환우를 위한 치료비 지원금 300만 원과 현행증서 1000장 전달식에 이어 26일 독거노인 20세대에 김치와 연탄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23일 전달식에는 현지·지각·명신 스님 등 이사스님들과 범회승 병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순균(남 62세·위암)·김재홍(남 41세·뇌종양)·이태양(남 12

세·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의 치료비로 각각 100만원과 현행증이 전달됐다.

이날 전달한 지원금은 올해 3월부터 12개 사찰에서 신도들이 1만배(1배 100원) 정진에 참여해 모금된 금액을 전달한 것이다.

26일에는 '생명나눔과 함께'라는 김치와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갖고 북구청에서 추천한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10여 세대에 각 200장씩 연탄 2000장과 김치를 전달했다.

연탄나누기에는 본부장 현지 스님, 이사인 명신 스님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10여명이 동참해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4대종교 음악제

익산지역 개최

익산지역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교 음악제가 11월 27일 전북 익산 송리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다양한 가곡과 종교 성가곡 등이 선보인 이날 음악제에는 불교를 대표한 가톨릭가합창단과 원불교 정토합창단, 천주교 바리톤 김대수, 기독교 메조소프라노 이은선씨가 각 종교를 대표해 노래했다.

특히, 불교를 대표해 참여한 익산 가톨릭가합창단은 '님을 따라 날고 싶어서' '즐거운날' '나무관세음보살 대자대비' 등 찬불가를 합창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토굴수행과 만행 중 대종들의 삶의 질곡을 목격하고는 10만 달마 그려주기 서원과 함께 참선수행의 일환으로 전국 불자들에게 무보시 달마도를 그려주고 있다.

범용스님의 달마 3285

“자신의 근원적 주체성을 자각시켜 번뇌 망상을 소멸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범용 스님 현재 '한국달마 禪思想' 회장 범용스님은 경북 영주 출생으로 출가 달마선양, 제사자 교화, 장애인 후원, 군부대 포교에도 힘쓰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의 모든 불자들에게 무보시로 달마도를 그려주고 있다.

1부 달마를 찾아서
2부 선화(禪話) 이야기

MBC 전국시대 방영
PSB 리얼터치 오늘 방영
YTN 뉴스 보도
BTN 불교 TV 다수 방영
CJ TV 뉴스보도
동아, 부산, 국제, 제주,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영남일보

화제의 신간

범용스님 저 | 값 10,000

도서출판 국부카르마 T.051-583-9923 www.kukbukarma.com
책은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